

바이오다인

로슈의 LBC 도말 장비 출시로 매출 본격화 예상

- 동사 블로잉 기술이 적용된 LBC 도말 장비 'Ventana SP 400' 일본에서 첫 출시
- 자궁경부암 검진 시장에서 LBC 기술은 pap smear 대체하며 점유율이 확대되는 흐름
- 로슈의 Ventana SP 400 글로벌 출시 본격화로 동사 수혜 전망

동사 핵심 기술 적용된 로슈 LBC 도말 장비 'Ventana SP 400' 출시

동사의 특허 기술인 블로잉(Blowing) 방식이 적용된 로슈의 액상세포검사(LBC) 도말 장비 'Ventana SP 400'이 6월 20일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되었다. 당초 작년 말로 계획되었던 출시 일정이 연기됐으나, 이번 출시로 본격적 사업화가 개시되었다. 일본 로슈진단은 6월 23일 기사에서 해당 장비를 제66회 일본 임상 세포학회 총회(6/27~6/29)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진단(부인과, 비부인과)을 포함한 세포진 검사에 사용되는 표본을 균일하고 선명하게 도말하는 반자동 장비로, 진단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비 출시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며, 동사 주가는 작년 10월부터 조정 국면에 접어든 바 있다. 올해 3월 말부터 연내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며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 이번 장비 출시를 계기로 매출 발생이 가시화되면서 확실한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alyst's Insight: 장비 매출 및 검진키트 로열티 매출로 실적 성장 본격화

동사의 핵심 기술인 블로잉 방식은 Hologic(필터 방식)과 Becton Dickinson(침전 방식)에 이어 세번째로 상용화된 LBC 기술로, 세포 손상이나 세포간 중첩 없이 고르게 도말된 표본을 얻을 수 있어 타사 기술에 비해 진단 정확도가 높다(Diagnostic Cytopathology, 2014). '13년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14년 일본 로슈와 처음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로슈와 20년 독점판매계약('19년~'39년, 5년 단위 자동 갱신)을 맺었다.

이번 로슈 LBC 장비 출시는 동사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초기 2년 장비 판매물량에 대해 동사는 대당 약 3백만원을 수취하며, 부인과용 키트(자궁경부암) 바이알당 약 300원의 기술이전 로열티를 수령한다. 비부인과용 키트는(갑상선암, 전립선암 등)은 완제품을 공급방식(OPM은 4~50% 수준)이다. 진단 사업 입찰 방식인 것을 고려하면 초기 2년간은 장비 매출이 서서히 증가하고, 이후로는 소모품 성격의 키트 매출이 반복 매출을 일으키면서 동사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제외 모든 국가에 런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각국 로슈 법인에서 연내 순차적으로 런칭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SCCP와 WHO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변경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패러다임이 기존 세포진단(pap smear, LBC) 선행에서 분자진단(HPV 진단)이 선행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HPV 진단이 선행될 경우, 동일 검체로 검사 가능한 LBC가 검체를 다시 채취해야 하는 pap smear보다 선호된다. Ventana SP 400이 공개되는 일본 학회에서도 5개 단체 공동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시 LBC 검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일본 LBC 선언'을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LBC의 점유율 확대와 함께 동사 기술의 활용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기타 채외진단 대비 액상세포 검사(LBC)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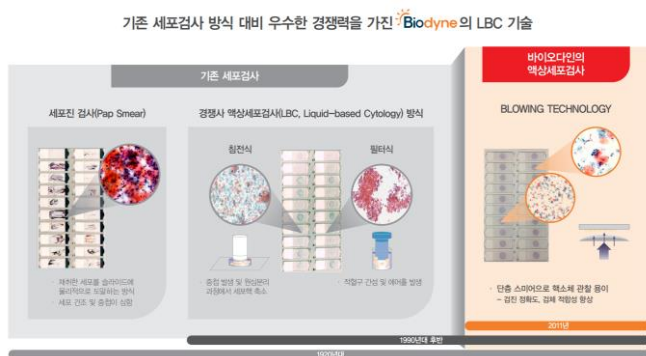
자료: 바이오다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바이오다인의 LBC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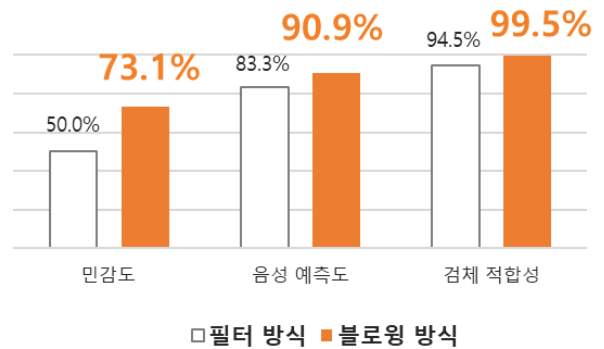
자료: 바이오다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바이오다인의 LBC 특허 기술인 Blowing technology



자료: 바이오다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홀로직의 필터 방식과 비교 데이터



자료: Diagnostic Cytopathology, 바이오다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